

영화 ‘다이빙벨’ 논란에 대한 도덕 상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철학이란 무엇인가」 「영상언어연출」 강의페어링

미디어학부 200821355 윤호민, 이진희 교수님 지도

목적

‘철학이란 무엇인가’ 수업을 들으며 윤리학적 문제와 예술작품과의 연관성은 뭘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영상언어연출’ 수업에서 예술작품의 가치에 대해 공부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논란인 영화<다이빙벨> 상영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특히 예술작품의 가치와 대중들이 윤리학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상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이빙 벨 논란

2014년 10월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외압논란이 일어났다.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일어난 ‘다이빙벨’ 투입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다이빙벨’ 투입을 지휘하는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와 그에 맞선 해경의 대응을 담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다이빙벨> 상영이 부적절하니 상영 중단을 검토하라”며 지시하였고 이에 반발한 영화제 측과의 대립이 일어났다.



영화 <다이빙벨> 포스터

도덕상대주의

도덕상대주의란?

도덕상대주의란 도덕적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시작된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S가 행한 행위 P는 그가 속한 사회 A에서 승인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 A에서의 관습, 문화의 기준에 따라 승인되어진 것일 뿐 근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이빙 벨> 논란에서의 상대주의적 접근

<다이빙벨> 논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봤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상대주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를 작게 보며 소수집단으로 볼 경우 “각각의 집단(학생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의 판단은 모두 옳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집단 간의 객관적 옳음의 기준이 없고 옳음에 대해 판단 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많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번 강의 페어링을 통해 예술작품의



학생유가족 및 영화단체

영화상영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의 규명 및 예방을 위한 교두보 제시

&



일반인유가족 및 부산광역시장

구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 <다이빙벨>에 대한 거짓된 사실을 보여줌으로서 대중을 우롱 및 정치적 중립 훼손, 유가족의 상처를 돌우는 일

예술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이빙벨> 논란과 같은 윤리학적 문제에서 상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예술작품의 가치

예술작품이란?

예술작품이란 ‘예술미’를 가진 작품을 말한다. ‘예술미’란 그 작품,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심적 상태를 반영한 아름다움이다. 작가는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불합리하거나 옳지 않은 사건 혹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예술작품의 ‘예술미’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관객에게 비판적 사고를 촉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크게 나타난다.

<다이빙벨>의 예술적 가치

<다이빙벨>이 가지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의문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관객들에게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며 나아가 대중들로 하여금 현 사회와 정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예술미’가 있는 예술작품인 것이다.

도덕상대주의적 접근의 문제점

앞서 말했듯이 예술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나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비판적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다이빙벨’ 논란에 접근하는 대중들의 방식에 있어 도덕상대주의적 접근은 문제가 있다. 이는 예술작품에 대한 객관적 옳음과 가치판단을 부정한다. 즉 도덕상대주의적 접근으로 바라보면 비판적 사고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취급되어진다. 도덕적 상대주의로서 예술작품에 접근할 경우 앞서 말한 예술작품의 가치가 부정된다. 예술작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비판적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경우 해당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다이빙벨’과 같은 윤리학적 논란에서 옳음에 대한 가치판단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옳음의 판단은 그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방향 - 규칙공리주의

고전적공리주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S가 행한 행위 P가 초래한 행복의 총량”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S가 행한 행위 P”라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공리주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공리주의(행위공리주의)는 행위 P가 가진 인과적 범위에 대한 계산이 너무 방대하며 비도덕적 행위 또한 특수한 경우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 영화 <다이빙벨>의 경우 두 집단이 가지는 입장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다르며 이를 통해 얻게되는 행복의 총량 또한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 따라서 좀 더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규칙공리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고전적 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S가 행한 행위P가 초래한 행복의 총량”



규칙공리주의적 접근

“P유형의 행위가 초래한 일반적 결과”

결론

규칙공리주의란 “P유형의 행위가 초래한 일반적 결과”에 기초한 객관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기존의 개별적 경험을 배제한 일반적 결과에 기초한다. 예술작품은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예술미를 추구한다. 규칙공리주의에 따르면 예술작품을 통한 나은 사회로의 도약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행복을 준다.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일반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예술작품의 표현을 막는 행위는 잘못 된 것이다. ‘다이빙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옳은 것에 대한 탐구와 정당화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또 다른 세월호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의 진보를 이룰 권리가 있고 예술작품은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